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1. 5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업무담당자	강형호	☎ 760-763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삼색당근 키우고 제주 채소로 요리하는 체험꾸러미 개발

- 동부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‘소농로드’가 아동·성인용 2종 선보여 -

- 아동·성인 대상 4차례 시범운영… 참여자 의견 반영해 제품 보완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사업장 소농로드(대표 조준희)가 개발한 농업·농촌 학습용 체험꾸러미(키트) 2종의 시범운영을 마쳤다.**

○ 센터는 아동과 성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 활동으로 농업·농촌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‘수요맞춤형 농업·농촌 학습 체험키트 개발 시범사업’을 추진했다.

❑ **이번에 선보인 체험꾸러미는 ‘삼색당근 키우기’와 ‘자연주의 채소커리와 제주 제철채소’ 두 종류다.**

○ 아동용인 ‘삼색당근 키우기’는 다양한 색깔의 당근을 직접 심고 기르며 농작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.

○ 성인용인 ‘자연주의 채소커리와 제주 제철채소’는 간편한 조리 과정을 통해 제주 식재료의 맛과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❑ **동부농업기술센터는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4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체험꾸러미의 활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확인했다.**

○ 1~3회차에는 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세화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0명이 삼색당근 재배 활동에 참여

했다. 체험 후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변화, 재참여 의향 등을 조사했다.

○ 4회차에는 공개 모집한 성인 6명에게 ‘자연주의 채소커리와 제주 제철채소’ 꾸러미를 배송했다. 참여자들은 재료를 직접 조리·시식한 뒤 온라인 설문으로 맛과 풍미, 조리 편의성, 상품성 등을 평가했다.

❑ **아동 대상 설문에서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과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93%(30명 중 28명)였다.**

○ 성인 6명은 모두 맛과 풍미에 ‘매우 만족’한다고 답했다. 조리 편의성, 가격 대비 구성·품질, 정식 출시 시 구매·추천 의향에는 각각 5명(83%)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.

○ 삼색당근을 직접 심는 활동과 상세한 설명서, 음식 풍미와 간편한 조리 과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○ 당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추가 콘텐츠와 꾸러미 내 채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.

❑ **김수미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아동에게는 농업의 즐거움을, 성인에게는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”며 “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, 농업·농촌 교육과 지역 농산물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”고 말했다.**